

독일 철학의 유입과 수용 전개 (1900~1960년)

백종현(서울대 철학과)

1. 개관 및 평가

국회도서관과 국립 중앙도서관이 매년 발간하는 『收書目錄』과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 학술원이 발간한 『學術總覽』 11집 [철학I] (1976), 『學術總覽』 37집 [철학II] (1987), 기타 여러 철학회의 각종 논문집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보고서¹⁾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1915년부터 1992년까지 발간된 서양 철학 관련 문헌(단행본, 논문)은 총 6,042편인데, 그 가운데 독일 철학에 관한 것이 유난히 많다. 다루어진 철학자들의 빈도수를 개인별로 살필 경우 상위 20위 내에 독일어권 철학자는 칸트(1위), 헤겔(2위), 하이데거(3위), 마르크스(5위), 후설(6위), 니체(7위), 야스퍼스(10위), 하르트만(13위) 등 8명이나 되며, 이 중에서도 칸트(526편), 헤겔(409편), 하이데거(238편) 등은 플라톤(4위, 222편), 아리스토텔레스(8위, 117편), 비트겐슈타인(9위, 96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연구된 셈이다. 기간을 1915년부터 1959년으로 제한해서 살펴보면, 이 기간 중에 나온 상위 20위까지의 철학자에 관한 연구 문헌 총 33편 가운데 73편이 독일 철학 관련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통계 수치상으로나 활동하는 철학인의 면면으로나 서구 철학 사상 유입 초기에 ‘서구 철학 사상’이란 사실상 ‘독일 철학’을 의미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연유일까? 당시에 독일 철학이 세계 최고의

1) 이훈, 서구철학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 —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철학사상』 4호, 93면 이하 참조.

수준으로 일세를 풍미한 때문일까? 서구 철학 사상 가운데서도 독일 철학이 우리의 전통 사상과 가장 큰 친화성을 가진 때문인가? 부분적으로는 이런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서구 철학 사상 유입 초기가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한 기간이며, 같은 때에 일본과 독일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데서 그 주된 이유를 찾는 것이 옳겠다. 1915년~1944년 사이에 발표된 주요 철학 논저 수를 살펴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러셀에 관한 것이 각각 1편씩이고, 베르크손에 관한 것이 3편인데 반하여, 칸트 6편, 헤겔 8편, 마르크스 4편, 니체 3편, 후설 1편, 하이데거 2편으로 그 수효에 있어서 독일 철학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독일적 철학자들에 관한 연구가 고르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²⁾ 그리고 이런 연구 경향이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벗어난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됐던 것은, 이미 그때는 세계 열강의 역학 구도상 독일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됐음에도, 기왕의 연구 인력이 독일 철학에 친숙해 있었던 탓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항 초기에 우리의 서구 사상 접촉 창구가, 일본인에 의해 쓰여졌거나 일본인이 썼고 중국인에 의해 번역된 서적이었다는 사실은 그 후에 전개된 한국 문화의 상황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다른 분야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철학 사상 영역에서도 우리는 일본식 한자로 짜여진 신조어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상당 기간 서구 사상에 대한 일본적 이해 수준에 매이게 되었다. 서양 철학 문헌을 원서로 직접 읽거나 서양 철학자한테 직접 배우지 않고서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일본어 번역이나 일본 학자의 해설을 통해 서양 철학 사상을 접할 수 있으므로 해서, 서양 사상이 우리에게 빠르게 유입될 수 있었던 반면에 — 적어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조나 어감의 차이만큼은,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재래 문화의 차이만큼은 —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대로 또는 일본식으로 선이 해된 채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오해되어 유입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인한 폐해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 식민지 언어정책에 따라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더 체계적으로 습득한 세대가 문화 생활에서 주도

2) 앞의 글, 122면 참조.

적 역할을 하는 동안 — 서양 사상이 일어로부터의 중역(重譯)을 통해 보급되고 원저의 발췌 번역에 간단한 해설을 곁들인 — 그것도 일본 어감이 짙게 배어 있는 — 책이 독자적인 창작물 저서처럼 유포된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우리 학자들의 서양어 원서 독해력이 신통하지 않을 때에 그나마 일본어라는 통로가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면, 아홉 가지를 잃고 그 대신에 한 가지는 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한 시기와 그 잔재가 두텁게 남아있는 시기에 일선에서 서양 사상 수용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서양 제국간의 관계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대 사상가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외래 사상과 직접적으로 접했느냐 매개적으로 접했느냐는 점이 아니라, 당대의 사상가들이 그 시대가 철학에게 요구한 바에 과연 올바르게 부응했는가 어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른바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의 대류(大流)는 의식도 못한 채 도량물 속에 빨이나 담그고 유유자적하거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이가 적지 않고, 철학을 현실화한다는 명목 아래 시류따라 흐르거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둘되어 아무런 원리 반성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도 적지 않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대의 철학 사상 관련 논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안점은 그 내용이 당대의 문제 의식을 얼마나 철학적으로 즉 원리 반성적으로 충실화하고 있으며, 그 사변 과정과 결실이 얼마나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가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유입과정과 수용 전개

1) 유학자들에 의한 독일 철학 소개(1900~1920)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철학이론이 단편적이나

마 소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철학적’ 관심에서 서양 철학 사상을 탐구한 것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1920년까지의 서양 철학 연구는 오로지 한문 서적만을 진서(眞書)로 여기는 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서양 철학 연구가 간접 문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중국 사람이 썼거나 일본 사람이 쓴 것을 중국 사람이 번역한 서적을 토대로 한 연구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독일 철학 — 그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을 통털어서 —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이는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이다.

이정직은 128면에 달하는 “康氏[칸트] 哲學大略”을 남겼는데, 그것은 1903~191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³⁾ 이정직이 어떤 경로로 칸트를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칸트 원전을 읽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아마도 梁啓超文集을 통하여 부분적인 지식을 갖게 된 듯하다.

이정직은 칸트(‘康德’)가 라이프니츠의 이성론과 흄의 경험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했으며 그 결과가 그의 3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력비판』에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칸트 철학과 주자학(朱子學)을 비교하면서 칸트를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칸트 철학의 초점이 여느 서양 철학자의 것과는 달리 사변 이론이나 기술 과학 문제가 아니라 도덕·실천의 문제에 맞춰져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도덕 철학은 다름아닌 ‘인(仁)’의 사상이며, “칸트야말로 동양 유학자의 화신(化身)이 서양에 가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 칸트 사상은 성(聖)스럽다고까지 평했다.⁴⁾

이정직은 또한 “서양 사람이 칸트의 윤리학과 실천 이성 비판 공부를 잘 하고 보면 동양에 와서 더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날지 모를 것이다.”고 말했다 하는데, 이로 미뤄 볼 때 그가 칸트에 관해 조사 연구한 것은 그를 통해 새로운 사상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 유교 사상의 보편

3) 『朴鍾鴻 全集』 V, 257~259면. ‘李定稷의 『칸트』 研究’ 참조.

4) 앞의 책, 258면 참조.

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정직의 것 외에도 전병훈(全秉薰, 1860~?)이 북경(北京)에서 간행한 『精神哲學通編』에서 우리는 당시 한국인들의 독일 철학에 대한 이해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철학을 근본 원리의 학으로 파악한 전병훈은 희랍 철학자로서는 플라톤을, 근세철학자로서는 칸트를 제일인자로 꼽았으며, 특히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관심을 보이면서 전세계가 화합하여 하나의 자유로운 선의지의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책의 말미에는 가칭 ‘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을 제시하였는데, 각국이 독립 평등한 자격으로 世界大統領을 선출하여 통일 중앙 정부를 세워 人道 정치를 펴야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며, 이런 생각은 단지 그의 소견이 아니라 “東에서는 孔子가 말하고 西에서는 칸트가 이미 논한 이상론”이라고 덧붙이고 있다.⁵⁾

전병훈은 칸트의 인식론과 도덕 철학에 관해서도 그 대강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찰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지식과 관찰이나 실험을 거쳐야만 얻어지는 지식은 구별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칸트에서 선협적·경험적 지식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 틀림없다. 또 그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도덕 법칙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본성이 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칸트의 자유의지론을 수용 설명한다. 자유가 없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라는 것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회한(悔恨)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논변을 펼쳤다. 전병훈은 또한 이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도덕법칙은 至上命令으로서 무엇을 위한 수단 가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 설명한다.⁶⁾

이정직과 전병훈의 예로 미루어 볼 때 20세기 초엽 우리의 서양 철학 사상과의 접촉은 비록 한문으로 된 2차, 3차 문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통 사상의 자존을 지키면서도 새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 앞의 책, V, 255면 참조.

6) 앞의 책, V, 254면 참조.

2) 초기 해외 유학생들에 의한 독일 철학 유입(1921~1929)

우리나라 사람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처음 사람들은 모두 독일어 지역에서 수학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박사인 이관용(李灌鎔, ?~1933)은 1921년 스위스의 취리히(Zürich) 대학에서 립스(F. G. Lipps) 교수의 지도를 받아 “意慾論 — 意識의 根本事實로서 —”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였다.⁷⁾

이 논문에서 이관용은 근대 심리학의 주류이던 知·情·意의 三分能力說을 반박하고 의식의 근본사실을 의욕에서 보려하였다. 의식은 물론 知·情·意 3요소의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순환 활동이겠지만, 의식의 자발성 바꿔 말해 자아의 능동성의 근거는 다름아닌 애씀의 양상인 의욕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의욕이 知·情·意 3요소의 궁극적인 바탕이라는 것이다. 이런 그의 주장을 그는 ‘실험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입증하려 하였다.⁸⁾

학위 취득 후 이관용은 바로 귀국하여 연희 전문학교에서 논리학·심리학·철학개론 등을 가르쳤다. 1922년에는 동아일보에 “사회의 병적 현상”이라는 글을 연재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사회 유기체론을 피력하였으며, 당시 독일 철학계의 한 기둥이었던 오이肯(K. Eucken, 1846~1926)의 신관념론(Neuidealismus)과 세계 제1차대전 때부터 부흥의 흐름을 타던 헤겔(G. F. W. Hegel, 1770~1831) 철학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⁹⁾

1925년에는 백성욱(白性郁, 1887~1981)이 독일 뷔르츠부르크(Würzburg) 대학에서 “불교의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26년부터 불교 전문학교(동국대학교 前身)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1929년에 안호상(安浩相, 1902~)은 독일 예나(Jena) 대학에서 신칸트학파의 일원인 바우흐(B. Bauch, 1877~1942) 교수의 지도를 받아

7) 김두현, “故李灌鎔博士 意慾論 — 意識의 根本事實로서 —”, 『哲學』 제2호, 철학 연구회 편, 1934년, 130면 이하 참조.

8) 앞의 글, 134면 이하 참조.

9)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下卷, 400면 참조.

쓴 “관계 문제에 대한 헤르만 로체(H. Lotze)의 의미”(H. Lotzes Bedeutung für das Problem der Beziehung)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보성전문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독일 철학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철학 강의를 하며 독일 철학을 독일어 원전을 통해 직접 해독·해설한 안호상은 1930·40년대를 통털어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안호상은 1934년 “헤겔의 哲學의 始初와 論理學의 始初”(『普專學會論集』 I)를 발표했고, 1941년에는 일본 京都 대학에서 발간하는 『哲學研究』 誌에 “헤겔에서 판단의 문제”라는 독일어 논문을 기고하였으며, 日帝의 우리말 말살 정책아래에서 1942년에 『哲學講論』(서울 東光堂 書店 刊, 1942년, 286면)을 출간하였다.

이 『철학강론』을 일별해 보면 그것이 거의 전적으로 당시 독일의 철학 교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개념의 대부분을 독일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강론』은 ‘제1부 철학 개념의 일반 규정’과 ‘제2부 이론철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2부는 다시 ‘제1장 형이상학’과 ‘제2장 인식론’으로 짜여져 있다.

안호상은 “철학의 개념은 비로소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이르러 엄밀한 학적 규정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철학은 學(Wissenschaft)으로서 ‘먼저’ 認識(Erkenntnis)이며 또 이 철학적 인식은 ‘事件들로부터 된’(ex datis) ‘歷史的 認識’이 아니라 ‘原理들로부터 된’(ex principiis) ‘理性認識’이다(칸트全集 第八卷, 論理講義, 341項)”라고 설명한다. 중요 철학 용어에는 독일어를 병기(竝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저명한 독일 철학자를 인용한다. 헤겔은 말할 것도 없고 라이프니츠(Leibniz), 볼프(Ch. Wolff), 헤르바르트(J. F. Herbart, 1776~1841),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 1788~1860), 포이에르바하(L. Feuerbach, 1804~1872), 마르크스(K. Marx, 1820~1883), 로체(R. H. Lotze, 1817~1881), 하르트만(E. v. Hartmann, 1842~1906), 니체(F. Nietzsche, 1844~1900), 딜타이(W. Dilthey, 1833~1911), 빈델반트(W. Windelband, 1848~1915), 리케르트(H. Rickert, 1863~1936), 코온(J.

Cohn, 1869~1947), 바우흐, 가이저(J. Geyser, 1869~1948), 쉘러(M. Scheler, 1875~1928), 하르트만(N. Hartmann, 1882~1950),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 등이 망라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후설(E. Husserl, 1859~1938)과 현상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안호상은 세계 4大 철학자로 “희랍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독일의 칸트와 헤겔”¹⁰⁾을 꼽으면서도, 그의 철학개론은 칸트와 신칸트학파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 그의 『철학강론』은 부분적으로는 빈델반트의 『철학개론』의 요약으로 채워진 흔적도 있다.(133면~135면 참조) 그러나 그는 또한 『論語』·『中庸』과 같은 동양의 전통 고전을 끌어와 철학함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도 한다.¹¹⁾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 중심으로 쓰여진 안호상의 『철학강론』은 독일 철학계의 영향 아래에서 ‘이론 철학’의 문제 영역과 주요 쟁점과 그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철학으로부터 영향 받은 자취는 독일 유학생 안호상에게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생이었던 한치진(韓稚振)에게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한치진의 『최신 哲學概論』(復活出版部 刊, 1936년, 263면)은 안호상의 것보다도 먼저 출간이 되었고, 자기 책을 쓸 때 참조했다고 밝힌 “서양에서 권위있는 저서들”¹²⁾ 17권이 모두 영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틀과 내용에서 독일 철학의 영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철학의 분류’를 하면서 칸트적인 분류 기준을 “주요시할 것”¹³⁾이라고 언명한 점도 그렇고, ‘인식의 판단적 형식’을 설명하면서 “칸트 이후에 우리의 심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을 일반이 승인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식은 외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판단은 심리가 그 환경을 해석한 것이다. 모든 지식은 이 판단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판단과 해석은 통각의 원리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다.”¹⁴⁾고 보는 점과, 또한 이

10) 안호상, 『철학강론』, 57면.

11) 앞의 책, 26~27면 참조.

12) 한치진, 『최신 철학개론』 自序, 17면.

13) 앞의 책, 본문 17면.

것을 이어서 “우리의 心理는 인식대상과 [...] 同質인 것”을 주장하면서, “헤겔파의 主客一元論이 正路에 들었다 할 수 있다.”¹⁵⁾고 말하는 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3) 일본 제국주의 문화 정책 하에서 독일 철학 유입(1929~1945)

1919년 3.1운동 후 1922년에 일제의 朝鮮新教育令이 발표되고, 1923년에 京城帝國大學 豫科가, 1926년에 法文學部 哲學科가 설립되었다. 일본인 교수들 밑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1929년부터 다수 배출되었고, 1950년대까지는 이들이 한국 철학계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의 모든 학과의 출신들이 합동하여 일종의 學報라고 할 수 있는 『新興』을 발간했는데 창간호(1929. 7)부터 제7호(1932. 12)까지는 연속적으로, 그후 시간 차이를 두면서 8호(1935) · 9호(1937)가 출판된 이 잡지에는 다수의 철학 논문이 실렸고, 이 논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우리 학계의 독일 철학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오늘날 평균적인 종합학술지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적 색채보다도 더 많은 독일적 요소를 우리는 『新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표지는 독일어로 쓰여졌고, 히틀러가 득세한 1932년 7월 31일의 독일 연방 의회 선거의 정당별 득표수와 의원수, 그리고 향후의 정치 동향까지 분석하는 논문이 “독일의 총선거와 그 의의 — 그 직후의 정세”¹⁶⁾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게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철학 관련 글들이 독일 철학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新興』 제1호(1929)에는 김계숙(金桂淑)의 “코엔 철학에 관한 斷片”(40~55면)과 배상하(裴相河)의 “『차라투스트라』(拔抄)”(88~95면)가 실려있다. 김계숙은 신칸트학파를 개설적으로 소개한 후, 코엔(H.

14) 앞의 책, 179면.

15) 앞의 책, 181면.

16) 白東和, 『신흥』 7호 (1932), 21~38면.

Cohen, 1842~1918)의 ‘순수 인식의 논리학’을 설명한다.

김계숙은 『新興』 제2호(1929)에도 “思索方法에 대한 序論”(42~54면)을싣고 있는데, 칸트·헤겔·후설·마이농의 사유방법을 약술하고 신칸트학파의 논리주의를 해설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룬다. 같은 호에는 권국석(權菊石)의 미완의 논문 “현상학의 眞理說에 대하여 — Husserl의 『논리학 연구』를 중심으로 — ”(51~61면)가 함께 게재되어 있다.

『新興』 3호(1930) · 4호(1931)에는 각각 김계숙과 안용백(安龍伯)의 번역글이 실려 있는데, 『철학과 특수과학』(빌리 목 原著)이라는 제목이 붙은 김계숙의 글(61~76면)은 신칸트학파의 관점에서 “철학은 과학과 결합하며, 더 나아가 철학은 과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안용백의 글(69~87면)은 그 제목이 “헤겔 現象學 中의 개체의식과 사회의식의範型”(J. Royce 원저, Lectures on modern Idealism, 1919, 제VII강)으로 당시 헤겔 사상이 사회철학적인 관심에서 탐구되기 시작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新興』 5호(1931)에는 신남철(申南澈)의 “헤겔 百年祭와 헤겔 復興”(17~40면), 김계숙의 “헤겔 思想의 前史 — 헤겔 百年祭를 당하여”(41~50면), 권직주(權稷周)의 抄譯(막쓰·쉐라 著) “哲學的 宇宙觀”(51~58면)이, 『新興』 6호(1931)에는 진오(陣伍)의 “抽象과 唯物辨證法”(12~21면), 소철인(蘇哲仁)의 “포이에르바하 哲學 — 헤겔을 紀念하는 의미에서”(22~28면), 신남철의 “新 헤겔主義와 其批判”(29~37면)이, 『新興』 8호(1935)에는 소철인의 “마하主義에 대한 片想”(56~60면)이, 『新興』 9호(1937)에는 신남철의 “認識 · 身體 및 歷史 — 『문화의 논리학』의 기초론 I”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제하에서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남북의 분단을 맞아야만 했던 민족의 비극적 상황아래에서 당면의 문제에 철학적으로 대결하고자 했던 한 중요한 철학도를 만나게 된다. 그는 신남철(1906~1957)이다. 신남철의 활약상은 1931년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한 직후부터 해방 후 대한민국 수립 때까지 매우 두드러진데, 그의 시대가 철학자에게 요구한 바에 대한 그의 응답을 정리하여 그는 『歷史哲學』(1948. 1. 30.

서울출판사, 228면)에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밝힌 그의 역사철학의 기초는 마르크스주의였다.

1870년대 이후 유럽 여러나라에서 그러했듯이 1930년대 일본에서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기존의 국가·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부정하는 불온 사상이었다. 신남철은 1931년 마침 독일에서 헤겔 百周忌年에 나치즘과 더불어 부흥의 기미를 보인 ‘헤겔 부흥’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비판함으로써 파씨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독일에서 헤겔 부흥은 딜타이(W. Dilthey)가 베를린에서 발간한『헤겔의 青年時代傳』(Jugendgeschichte Hegels)과 빈델반트가 1910년 주창한 “헤겔주의의 再興”(Die Erneuerung des Hegelianismus)에서 비롯했다고 신남철은 진단하고,¹⁷⁾ 그러나 헤겔이 죽은지 100년이나 지난 당대에 와서 헤겔 부흥의 참뜻은 단지 헤겔 체계의 정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헤겔 정신 — 변증법적 발전의 필연적 일 과정으로서의 — 에 의한 현실적 출발이라야 할 것”¹⁸⁾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사회적 “모순의 부정적 해결”¹⁹⁾을 도외시하고 기존의 보수적 제국주의 편에서 있는 신 헤겔주의는 헤겔적 정신의 정로(正路)를 벗어난 것으로 “사실 新 헤겔주의자들은 대개 親 파씨스트가 되고 말았다.”²⁰⁾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신남철에게는 포이에르바하의 말마따나 “혁명하는 심장과 개혁하는 두뇌”²¹⁾가 결합해 있는 헤겔 좌파 - 변증법적 유물론의 방향이 헤겔적 정신을 참으로 부흥시키는 길이었다. 신남철은 “헤겔에 있어서 다소 천재적 또는 우연한 추측이었던 것이 막스에 와서는 과학적 연구가 된 것”²²⁾이라고 보았다.

17) 신남철, 『歷史哲學』, 140면 참조. * 신남철의 글들은 최초 발표 誌에서 인용하는 대신에, 후에 단행본으로 발간한 이 책에서 따옴.

18) 앞의 책, 141면.

19) 앞의 책, 149면.

20) 앞의 책, 151면.

21) 앞의 책, 141면.

22) 앞의 책, 163면.

이렇게 짹튼 신남철의 사상은 차츰 신체적 인식론의 형태를 갖는다. 일체 인간의 역사는 개개 인간의 생존에 바탕을 두고 있고, 개개 인간의 현실적 생존은 신체적 삶의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다름아닌 인식이다. 그래서 인식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의 세계가 문제가 된다.”²³⁾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식은 자연에 대한 사변적 인식이 아니라 “실천적 인식”이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실천은 신체를 매개로 한 행위이므로, 실천적 인식은 다름아닌 “신체적 인식 이어야 한다.”²⁴⁾

신남철의 반성에 따르면, 신체적 인식은 3단계로 전개된다. “즉, (1) 수용(Aufnehmen) (2) 가공(Verarbeiten) (3) 표현(Entäußern)이 그것이다.”²⁵⁾ 인간의 육체에게는 대상의 “모사가능성이 부여되어(abbildungsfähigkeitbegabt) 있고, 이 때문에 대상의 촉발이 있으면 감관적 감성은 이를 수용하고, 수용 작용이 일어나면 곧바로 가공 작용이 뒤따른다.” “가공 작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수용한 것에 내용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해석(beschreiben)하는 것이다.”²⁶⁾ 인식의 가공 단계에서, 의식의 내용은 더욱 더 풍부해지는데, 가공 작용은 단순한 수용의 구성적 작용이 아니라, “‘개념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悟性의 能力의 自發性”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出生(사회적 환경, 신분, 계급관계 등을 포함한)이라든가 육체적 상태(체질 및 성격의 문제) 등에”²⁷⁾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가공 작용은 판단의 형태, 즉 이론적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활동은 “자기가 판단한 것을 외부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²⁸⁾ 그 표현 방식이 “신체화(Verkörpern)”이고, “이 신체화라는 것은 이론적 소신의 外部化 具體化이다.”²⁹⁾ 이 단계에 이르러서 思惟와 存在, 理論과 實

23) 앞의 책, 1면.

24) 앞의 책, 1/2면.

25) 앞의 책, 17면.

26) 앞의 책, 17면.

27) 앞의 책, 17/18면 참조.

28) 앞의 책, 18면.

29) 앞의 책, 18면.

踐은 통일된다. 그리하여 이론은 구체성을 획득하고 구체적인 마테리의 세계는 법칙적 자유가 지배하게 된다.³⁰⁾ 이로부터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유래한다.

“실천적인 인식은 역사적 인식이다. 그것은 동시에 문화 인식의 문제가 된다. 실천적인 행위의 擔持者는 개인 인간이고 그 행위의 소산으로서 역사는 만들어진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 관계로부터 이러한 것을 추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개인 인간의 사회적 규정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실천적 행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이 아니면 안된다. 노동은 창조이고 생산이다. 이때에 손, 도구 및 기계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본다. 개인은 노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관계에 몰입한다. 그러나 자기를 보존하면서 역사적 실천으로 자각하여 간다. 그리하여 정치적 실천에서 자기의 노동·창조를 완성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은 ‘창조의 최후목적’(Kant, Kritik der Urteilskraft, Reclam Ausgabe S. 317)이다. 신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의 본연의 성질을 발전시킨 극치로서의 ‘종극 목적’(a. a. O. S. 321)이다. 생물적 존재로서 전제되고 사회적 존재로서 역사를 만든다. 전자는 신체적 인간이고 후자는 노동·생산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이 양자는 하나이며同一한 것이다(Ein und dasselbe).”³¹⁾

상당히 길게 인용한 신남철 글의 이 대목은 1937년 『新興』 9호에 “인식·신체 및 역사 — 『문화의 논리학』의 기초론 I”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가, 1948년 단행본 『역사철학』을 묶어낼 때에 “제1장 역사철학의 기초론 — 인식과 신체”라는 제목으로 바꿔 낸 글의 도입부이다. 여기서나 이어지는 그의 논변이 상당히 거칠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바는 신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의 실천 활동 즉 문화·역사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며, 이런 주장을 그는 칸트·헤겔·포이에르바하·마르크스 등의 독일 사상가의 사변을 고려하면서 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신남철의 예는 막 형성된 우리 철학계에 독일 철학 사상의 영향이 —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 이미 심대했다는

30) 앞의 책, 19면.

31) 앞의 책, 2면.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징표는 1931년 신동욱(申東旭)의 논문 “헤겔 哲學의 自己意識論”(『延禧』 8)과 1933년 고형곤(高亨坤)의 경성제대 졸업논문 “Schelling 은 Fichte를 어떻게 넘어섰는가?”에서도, 그리고 특히 193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哲學研究會』를 결성하고 학회지로 펴낸 『哲學』의 수록 논문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35년까지 매년 1호씩 모두 3호까지 발간된 『哲學』에 게재된 논문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호(1933. 7. 17)

朴鍾鴻, “철학하는 것”의 출발점에 대한 一疑問

權世元, 철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의 永遠性에 대하여

李載壎, 具體的 存在의 구조

李鍾雨, 外界實在의 근거

安浩相, 客觀的 論理學과 主觀的 論理學

金斗憲, 윤리적 평가의 理念

申南澈, ‘헤라클레이토스’의 斷片語

제2호(1934. 4. 1)

朴致祐, 危機의 철학

朴鍾鴻, ‘철학하는 것’의 實踐的 地盤

李載壎, 存在 - 認識

申南澈, 현대철학의 Existenz에의 轉向과 그것에서 生하는 당면의 과제

李鍾雨, 生의 구조에 대하여

李寅基, 個性數型과 그 교육적 의의

安浩相, 理論哲學은 무엇인가

金斗憲, 故 李灌鎔 박사 意慾論 - 의식의 근본 사실로서 -

제3호(1935. 6. 20)

李寅基, 교육원리로서의 個性과 社會와 文化

田元培, 사회학의 논리적 구조

李載壎, 철학의 問題 및 立場

葛弘基, 회의주의의 논리적 방법

安浩相,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에 대하여(知와 行에 대한 一考察)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 전문가 모임인 「哲學研究會」의 학회지 『哲學』에는 앞의 목록에서 보듯이 이른바 ‘동양’ 또는 ‘한국’이라고 분류되는 논문이 한 편도 없으며 또한 오늘날의 「한국철학회」 학회지 『哲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누구에 있어서의 무슨 문제 연구” 따위의 철학사적 · 해설적 · 주석(註釋)적 글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상호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사태의 바탕에는 아마도, 당시 학자들이 모두 서양식 대학의 교과과정을 막 이수한 혈기 왕성한(그러나 그런 만큼 아직 미숙한) ‘풋내기’ 학도들이었던 데다가 당시 그들의 현안 문제 탐구에 한국이나 중국의 전통 사상의 소재는 더 이상 생생한 것이 못되었다는 사정도 있었음직하고, 또한 의기 충천했던 당대의 젊은 학자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면 그 다루는 소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것이었든, 조선조 시대의 것이었든 혹은 독일의 것이었든 ‘우리’의 철학이며, 그것이 일단 ‘철학’이라면 나의 주장의 표출인 만큼, 굳이 “누구누구의 무슨 사상에 대한 주석(註釋)”이라는 제목을 붙일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는, 다시 말하면, ‘나의’ 철학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 같다. 당시 모든 분야에서 새 문화의 개척자들이 거의 모두 ‘志士的’ 이었듯이 철학자들도 높은 기개(氣概)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실적 문제에 각자 일가견(一家見)을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상태의 서양 철학 사상 수용기에서도 적어도 그 자세만은 의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哲學』지의 논문 제목에서는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두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일철학사상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까지 대학에서 ‘철학개론’

류의 강좌에 참석한 수준의 일반인들에게 ‘철학 = 서양 철학 = 독일 철학’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한국에서 독일 철학의 위세는, 그 내용을 알고 나면 독일 사람들조차도 의아해하고 신기해 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런 양상을 『哲學』은 이미 예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 철학 사상 수용사의 관점에서 볼 때 『哲學』지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인물 가운데 박종홍과 박치우는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

박종홍(1903~1976)과 박치우(1907~1953)는 1932년 같은 해에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부터 그들이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 우리 철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연구 활동 초기에 서양 철학을 주 소재로 삼았으면서도 서양 어느 곳의 유학생이 아니었고, 그러면서도 서양 문헌 연구에서도 그 연구 연륜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수준 — 어떻게 보면 유학생보다도 더 높은 수준 — 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벌써 이들 대(代)에 와서 막 유입·수용된 서양 철학 사상의 토착화·한국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합의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것이 개인적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었던 식민지 지성인으로서 자각과 절박한 상황의 요구로부터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해서 였든 ‘실천하는 데 철학의 참 뜻이 있다’고 외치면서 철학 활동을 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안호상·신남철을 포함해서 서양 철학 수용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와 같은 ‘실천’에의 경향은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실천하자’는 큰 소리만 있고 그 내용 즉 큰 ‘이론’이 없는, 따라서 실천 자체도 별 위력이 없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현대 철학 100년史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최고의 철학자로 우리는 박종홍을 들을 수 있으므로, 지금 말하려 하는 것이 박종홍에게는 비켜갈 터이나, ‘철학은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현실은 실천의 산물이다. 관념을 농(弄)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하자’고 외치는 것이 ‘참다운’ 철학 활동은 아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 아니 당대보다도 더욱 더 — 그리고

어디서나 탁월한 철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양의 철학자들, 예컨대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아우구스티누스·토마스 아퀴나스·데카르트·로크·라이프니츠·흄·칸트·피히테·헤겔·마르크스·니체·하이데거·비트겐슈타인 가운데 어느 누구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철학을 하였던가? 도대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철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는 것인가?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며, 어떤 철학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단어적인 뜻에서 현실과 반대되는 말이 관념 또는 이상이니, 그런 맥락에서 플라톤의 이상국가 이론, 독일 관념론[이상주의]을 현실을 도외시한 철학이라 말하고자 함인가?

적어도 독일 관념론[이상주의] 철학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에게나 이른바 철학한다는 사람들에게나 ‘현실과 거리가 먼’ 철학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철학계에서 오늘날 이런 평가가 상당히 보편화하고 있는 까닭을 몇가지는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서 이른바 독일 관념론[이상주의] 연구가가 독일 관념론이 생성된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도 잘 모르고 또한 실천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 둘째는 독일 관념론과 현실관이 다르고 지지 기반이 다른 마르크스주의적 사고가 우리 시민 사회·학계에 은연 중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는 점 — 일제 때부터 독일 관념론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처럼 보인데다가 그 대안으로서 가치를 내건 마르크스주의는 지배-피지배의 기존 구도를 타개해 준 해방의 사상처럼 보인 데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 셋째는 독일 철학뿐만 아니라 독일 문화 전반을 폄하하는 미국적 성향이 어느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독일 관념론[이상주의] 철학은 과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얼토당토하지 않은 관념 덩어리인가? 독일 이상주의 철학자들 예컨대, 칸트·피히테·셀링·헤겔은 현실은 도무지 모른 채 ‘관념만을 놓한’ 자들인가? 또 한국에서 독일 관념론을 연구하는 일은 진짜로 현실과 유리된 짓거리인가?

현실 — 우리 인간의 실제 삶의 현장, 혼존하는 사람들 다수의 삶의

실제 방식, 실상(實相), 현상(現象) — 하면, 대개는 일차적으로 정치·경제 현실이 전면에 나서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현실에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일반, 학문(과학), 도덕적 현실도 있다. 대표적인 독일 이상주의 철학자들은 참다운 의미에서 당대의 제 방면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고, 현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은 통찰과 철저한 반성을 거쳐 독일 관념론의 이론 체계를 내놓았다. 독일 관념론처럼 당대의 독일 현안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짜임새 있는 철학적 답안을 내놓은 이론은 없고, 그런 까닭에 그것은 당대를 대변하는, 즉 현실에 부합하는 철학이었던 것이며, 그 때문에 당시 문화·종교·정치·경제·문학·음악 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독일 관념론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실천 강령이나 산업 전략 또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철학’ 이론인 것은 현상으로서의 현실의 토대, 원리를 사변적으로 천착하여, 현실을 다름 아닌 바로 그 현실로서 가능케 한 동력(動力) — 이성, 지도 이념, 목적, 정신(精神)을 개명(開明)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장 독일적인 독일 이상주의 사상은 유사한 상황·유사한 체험을 갖기 마련인 사람들에게서 보편성을 얻는 것이다.

현상으로서 현실이란 고정 불변적이지 않고 변역(變易)적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해석을 거쳐 드러나며,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른 그만큼 다른 모습을 띤다. 어떤 사회에서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된 나머지 이기심이 방치될 때, 철학자는 통일성과 공공(公共) 정신을 역설하기도 하며, 통일성이 내세워진 나머지 개성이 마모되어 가는 현실 사회에서는 철학자는 이기심의 효용성을 찬양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현재(現在)에 탐닉할 때 철학자는 영원(永遠)을 꿈꾸라 종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천상(天上)의 이상에 집착하면 철학자는 발디딜 땅을 확인하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철학자는 현실을 모르며, 현실과는 거리가 먼 꿈속을 헤매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며 현재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구의 현실까지도 시야에 가지고 있는 것일까?

1930년대 초에 박종홍과 박치우는 똑같이 현실에 기반을 둔 철학을

지향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박종홍은 우파적이고 박치우는 좌파적인 이론을 세우고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구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누구는 잘못 보았다고보다는 그들은 ‘현실을 서로 다르게 보았다’고 평가하는 편이 합당할 터이다.

박치우는 1934년 논문 “危機의 哲學”에서 위기란 “객체적인 모순이 주체적으로 파악되는 特定의 時期”³²⁾이며, 당시야말로 진실로 ‘위기’라고 파악한다. 당시에 식민 치하에서 일제 침략자와 조선 식민지 백성 사이의 모순, 조선 사회의 계층·신분 사이의 모순, 남녀 차별의 전통 관습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모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비롯한 유럽 국가간의 모순, 천황주의 일본과 아시아 제국 사이의 모순, 바야흐로 도래하는 산업 사회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시민 의식 사이의 모순이 편만한 당시에서 굳이 ‘격화된 모순’의 예를 나열할 필요가 없어서였든, 표현의 자유의 제약 상 그 예를 적시한다는 것이 난처해서였든 박치우는 ‘객체적인 모순’을 열거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야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한 바가 없는 “격화된 모순으로 포화된 시대”³³⁾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순을 이미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는 단지 “변화기 또는 과도기”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이다.³⁴⁾

박치우에 따르면 “주체적 파악이란 사물을 身命을 던져서 정열적으로 파악”함을 말한다. “사물을 로고스(logos)적으로가 아니라 파토스(pathos)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정열적으로 파악함”, “사물을 學的인 인식의 대상으로 죽은 對體로서가 아니라, 생활적인 交涉의 대상으로 산 對者로서 파악함”, 더 나아가 “단순한 對者로서 뿐만 아니라 抵抗, 威脅으로서의 敵, 원수인 對者로서 파악함”,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敵으로 바라봄에 그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물과의 긴장된 대립 — 즉 사물과의 ‘모순’을 깨뜨리고 사물 그것을 향하여 단적

32) 철학연구회 편, 『哲學』 제2호, 3면.

33) 앞의 책, 1면.

34) 앞의 책, 3면 참조

으로 突入하여 이것과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서 이것을 완전히 내것으로 克服하는 이런 정열적인 冒險”이 다름 아닌 주체적인 파악이다. 요컨대 주체적 파악이란 “사물과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깨뜨리고 돌입하여 싸움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는 것 — 이것은 곧 사물을 행동을 통하여 또는 實踐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³⁵⁾

그리고 피가 끓는 청년 철학도 박치우가 볼 때 당대의 격화된 모순에 대한 주체적 파악, 곧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³⁶⁾으로서의 ‘위기의 철학’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볼셰비키즘과 파시즘”³⁷⁾ 이다. 박치우는 그의 논설문의 말미에서 “兩者 [즉 볼셰비키즘과 파씨즘] 共히 현대의 위기는 실천에 의하여서만 극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일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주의하여야만 할 점은, 이 두 가지의 실천 중 어느 편이 참(眞)이며 어느 편이 거짓(僞)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점이다.”³⁸⁾고만 말하며, 그 선택을 독자에게 맡기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참다운 위기의 철학은 볼셰비키즘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그가 해방 후에 묶어낸 책 『思想과 現實』(白楊堂 刊, 1946, 230면)의 논조로 볼 때나 그의 행적으로 볼 때나 분명하다.

박종홍도 그의 논문 “<철학하는 것>의 출발점에 관한 —疑問”³⁹⁾에서 “우리의 <철학하는 것>의 출발점은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이 땅의, 이 현실적 존재 자체”라고 천명하고, “이 현실적 지반을 떠나 그의 출발점을 찾는 철학은 결국 그 시대 사회에 대하여 하등의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 자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가 곤란할 것”⁴⁰⁾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그의 초기의 생각을 말년까지 일관되게 견지했음을 해방 후 새 나라 건설과 새 시민 계

35) 앞의 책, 3면.

36) 앞의 책, 17면.

37) 같은 곳.

38) 같은 곳.

39) 철학 연구회 편, 『철학』 제1호(1933)에 게재.

40) 『朴鍾鴻 全集』 I, 35면. 박종홍의 글은 모두 그의 『전집』(烈巖記念事業會 全集編纂委員會 편, 螢雪出版社 刊, 1980)에서 인용한다.

몽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여 주었다. 박종홍은 학문이 성숙해 감에 따라 자신의 철학 — ‘誠의 哲學’이라고 불러도 좋을 — 을 세우고, 한국 철학 사상사 연구에서도 불멸의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의 철학 공부는 독일 철학 수용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금 인용된 논문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주제부터가 독일어 번역어이다. 그 자신이 “<철학하는 것>(das Philosophieren)”⁴¹⁾이라고 적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빼고는 자기 생각을 기대여 표현하려고 끌어들인 철학자가 모두 독일 철학자들이다. 피히테, 후설, 헤겔, 하이데거 등이 등장하며, 재미있게도 오늘날 가장 비현실적인 철학자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헤겔의 도움을 빌어 ‘학문을 위한 학문’, “현실로부터 도피한 철학”⁴²⁾이 무용지물임을 독자에게 확인시키고 있다.

서양 철학 수용기에 독일 철학의 거의 모든 부문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고 우리의 독일 철학 연구 수준을 현재에 이르게 한 최대의 인물은 다름 아닌 박종홍이다.

박종홍은 1932년 경성제대 철학과 졸업논문으로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Sorge에 관하여”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東京에서 발간되는 『理想』(1935. 2)지에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地平(Horizont)의 문제”를 발표했다. 1933년에 쓴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超越의 內面的 可能性에 관하여”도 남아 있다. 1934년 1월 1일자 每日申報에 게재된 그의 글 “現代哲學의 動向”을 보면 당시 그의 공부의 시야를 엿볼 수 있다. 박종홍은 이 글에서 당대의 유럽 각국의 철학 사상 제 유파를 “현대의 主流哲學”이라는 이름 아래 나열 소개하는데, 첫째가 ‘所謂 「헤겔 再興」’이요, 둘째가 ‘存在論的 傾向’으로서 후설 현상학 경향, 하르트만 · 하이데거의 존재론이고, 셋째가 ‘唯物論의 發展’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향방과 헤겔 · 마르크스 · 레닌의 관계, 넷째는 ‘超人」적 사상의 대두’로서 이탈리아 「파쇼」운동의 철학 정신, 독일 「나치스」의 사상적 배경, 니체의 초인

41) 『全集』 I, 313면.

42) 『全集』 I, 301면.

사상의 現實態, 하이데거 사상과의 관련성이다. 프라그마티즘과 베르크손의 생명철학은 마무리 말에서 뭉뚱그려 언급될 뿐이다. 그리고 박종홍은 또한 몇해 뒤의 글 “現代哲學의 諸問題”(朝鮮日報, 1938. 4. 15)에서는 하이데거 · 딜타이 · 하르트만 · 막스 쉘러의 철학적 문제를 검토하고, “理解와 思惟”(『文藝』, 京城, 1942. 9)에서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실존 철학의 특징과 방법적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

해방 전까지 박종홍의 독일 철학 연구의 중심은 하이데거 철학이었고 박종홍은 또한 하이데거 사상 속에서 자기 철학을 세우기 위한 발판 같은 것이 찾아지기를 기대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터인데, 이 하이데거 사상은 당시에 명백히 독일 나치즘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고, 박종홍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⁴³⁾, 또 일본 제국주의 노선의 편에 서있던 일본의 주류 철학자들의 호의적인 연구 대상이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사실은 얼핏 식민지 조선의 짚은 철학도 박종홍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불명예스럽게 보이게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뒤에도 30년이나 더 한국 철학계를 대표했고 또한 철학의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역설했던 그의 생애에서 그가 순진하다 할 정도의 ‘민족주의자’ · ‘국가주의자’요, 그의 식민지 체험이 그로 하여금 富國強兵策에 기울게 했었을 것임을 추정함으로써 당시 그의 철학함의 태도와 현실에 대한 인식 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다.

4) 새나라 건설과 독일철학 수용(1945-1960)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통치를 벗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었고 사회 운영원리와 세계경영 전략이 다른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분할지배를 전제한 것이었다. 이런 정세는 우리 철학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철학 사상과 같은 문화 형식은 외부영향을 급속하게 받으면서도 그 잔영(殘影)이 오래 가는게 보통이다.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벗어났으나 한번 배워익힌

43) 『全集』 I, 346면. “現代哲學의 動向” 참조.

지식과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조국이 양분됨으로 해서 독일 철학을 연구하고 수용한 철학자들도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非마르크스주의 — 독일 이상주의, 신칸트학파, 실존주의 등 — 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 새 나라 건설과 새 사회 운영에 관한 철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으며, 끝내는 서로 다른 조국을 택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되고 3년간의 미·소 군정을 거친 후 1960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민주당 정부) 때까지 15년간에 한국 정치사에 있었던 대한민국 수립(1948), 한국전쟁(1950~53), 4.19혁명(1960)이라는 세 차례의 굴절은 우리의 독일 철학 사상 수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해방 직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의 3년간은 일제 치하에서 反제국주의·反파쇼·민족 독립운동의 성격을 드러냈던 마르크스주의 철학도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박치우는 『思想과 現實』(1946, 白楊堂)을, 신남철은 『歷史哲學』(1948, 서울출판사)과 『전환기의 이론』(1948, 白楊堂)을 단행본으로 냈고, 전원배(田元培)는 엥겔스(F. Engels)의 『反듀링論-哲學篇』(1948, 大成出版社)을 번역해 냈다. 그러나 이후부터 ‘反共이 國是’로 천명되는 상황의 남한 지역에서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나 주장은 철학계의 표면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양성된 서양 철학 전문인들은 거의 모두가 독일 철학도들이었던 탓인지, 안호상처럼 학계를 떠난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취향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를 비켜가는 여러 유파의 독일 철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였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 성과는 사상에 대한 연구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해방후 한국전쟁 직후까지 대략 10년간 새로 출간된 철학책은 늘어가는 대학과 대학생의 교양교육의 수요에 부응해서 그리고 집필이 용이했던 때문인지 ‘철학개론’ 류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안에서나마 독일 철학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후에야 차츰 전문 논문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유수 대학의 석사 논문의 형태로, 다음에는 교수 연구 논문이나 박사

논문 형태로 발표되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1949년 서동익(徐同益)의 “칸트의 悟性에 관한 고찰”과 방승환(方昇煥)의 “칸트에 있어서의 純粹悟性概念의 先驗的 演繹論 一考”가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일제 시대에서와는 달리 칸트 사상에 관한 연구 논문이 다수 출현하였고, 마침내는 가장 많은 논저의 대상으로 칸트 철학이 부상한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일 철학이 본격적으로 그 근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칸트 이외에도 여전히 헤겔 연구는 활발하게 지속되었고, 6.25전쟁 전후의 실존주의 분위기 속에서도 나치즘의 패배와 연관이 있는 듯 하이데거 연구는 주춤하였으며, 후설, 니체, 야스페스, N. 하르트만이 고르게 연구되었다. 몇 예를 들자면, 김태길: “니이체의 가치관 小考”(서울대 석사 논문, 1949), 이순종: “변증법 연구- Hegel 변증법을 중심으로”(고려대 석사 논문, 1954), 김계숙: “헤겔의 청년시대, 철학적 사색의 胎動期”(한국철학회, 『哲學』 1, 1955), 김용섭: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과 종교”(전북 대 석사 논문, 1957), 박용호: “Jaspers의 ‘理性’의 기능에 관하여”(서울대 석사 논문, 1957), 이재기: “Kant의 自由意志論”(고려대 석사 논문, 1957), 최일운: “Kant에 있어서 ‘순수오성개념의 演繹’은 성공하였는가?”(전북 대 논문집 1, 1957), 최재희: “Hegel의 국가철학”(서울대 논문집 6, 1957), 김우태: “Friedrich Nietzsche 연구”(전남대 석사 논문, 1958), 박지연: “Husserl의 철학방법”(동국대 『東國思想』 1, 1958), 하기락: “하르트만의 존재론”(『思想界』 1958, 8), 김두현: “존재의 질서,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존재론에 근거하여”(학술원 논문집 1, 1959), 정진: “Kant의 선천적 종합론”(서울대 석사 논문, 1959), 채수한: “佛陀의 ‘空’과 하이데거의 ‘無’와의 비교연구”(경북대 석사 논문, 1959), 최준성: “니이체의 가치론에 관하여”(연세대 석사 논문, 1959) 등이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독일어 철학 원전의 우리말 번역서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이는 독일 철학 사상의 유입과 수용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후에 논리학·과학철학 전문가로 활동한 김준섭은 1943년 일본 동북제대 철학과 졸업 논문으로 “Kant의 時間論”을 쓴 후, 딜타이의 『哲學

의 本質』(1953, 을유문화사)을 번역해냈고, 하기락은 하르트만의 『철학개론』(1953, 형설출판사), 전원배는 헤겔의 『논리학 - 철학체계 제1부』(1954, 행림서원)를, 김계숙은 같은 책을 『논리학』(1955, 민중서관)이라는 제목으로, 박종홍과 서동익은 함께 Kant의 『形而上學 序論』(1956, 한국번역도서)을, 최재희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1957, 청구출판사) 등을 번역 출간하였다. 이로써 이제까지 전문 학자들 손에만 머물던 독일 철학 사상이 일반인들에게도 파급되는 매체가 마련되었다.

이시기에 독일 철학 사상이 대학가에 어느정도 유포되어 있었는가를 우리는 두 권의 철학개론, 곧 고려대 교수 李鍾雨 저: 『新訂 哲學概論』(초판 1948, 을유문화사)와 서울대학교 교양과목 교재출판위원회 철학과 분과위원회 저: 『대학교양과정 哲學』(1958)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우리의 독일 철학에 관한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박종홍의 탁월한 저술 『認識論理學』(1953 白映社, 1972 博英社)과 그의 박사 학위 논문 “否定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논문집』 8, 1959)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종우의 『철학개론』은 전체 분량이 208면으로 ‘緒論’에 54면, ‘제1편 認識論’에 78면, ‘제2편 形而上學’에 58면, ‘제3편 哲學의 特殊部門’에 18면이 할애되어 있다. 여기에서 철학사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출신 철학자들은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고, 대부분의 괄호안의 원어는 독일어로 표기되어 있다. “오오 철학이여! 너는 生活을 지도하며 德에 인도하며 죄악을 추방하는도다. 진실로 너 없으면 인간생활은 멸망할지도다”라는 키케로(Cicero, BC 106-43)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독일어를 병기(竝記)하고 있다.(9면) ‘철학의 방법’(25-40면)이라는 항목에서는 모두 독일 철학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곧 1. 선협적 방법: Kant, 2. 현상학적 방법: Husserl, 3. 변증법적 방법: Hegel, 4. 신비적 직관 (혹은 직각적 방법): Plotinus, Meister Eckchart(1260-1327), Nicolaus Cusanus(1401-1464), Schelling 만을 소개하고, 철학의 특수부문으로 유일하게 소개된 ‘역사철학’은 그 내용이 헤겔과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으로 채워져 있는 정도이다.

고형곤을 비롯해 16명이 공저한 서울대의 『철학』은 373면의 비교적 두꺼운 책으로 말미에 37면 분량의 ‘東洋的思惟’를 다루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담고 있으나, 책의 대부분(210면)을 차지하는 제1부의 제목이 ‘意識의現象學’이다. 그나마 하이데거와 야스페스의 실존 철학에 대한 서술에 4분의 1 이상(56면)을 할애하고 있는 정도이다.

박종홍의 두 편의 저작 『인식논리학』과 “否定에 관한 연구”는 독일 철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20세기 60년 서양 철학 사상 수용사에 있어서 그 이해 수준을 결정한 업적이라 평가하는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1948년 출간되어 오랫동안 우리나라 철학 교재의 한 전범이 되었던 『一般論理學』(1948 白映社, 1963 博英社)과 유고로 1977년에 출간된 『辨證法的論理』(博英社)와 더불어 박종홍의 3부작 논리학 저술의 중간을 차지하는 『인식논리학』은 그 창의성과 완성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며, 진지하고 성실하고 체계적인 박종홍의 사고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준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박종홍의 『인식논리학』은 자연과학적 인식의 원리만을 주제로 삼는다. 그래서 “경험적 인식을 해명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자가 본” Husserl의 순수 현상학이나, 사회과학적 인식을 해명할 때 중심이 될 변증법적 논리학은 논외로 한다.⁴⁴⁾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내고자 하는 바는 자연적 대상 인식의 원리와 성격이다. 그리고 그의 탐구의 결실은 크게 보아 3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선험적 인식논리학의 본질’이 구명되고, 이어서 ‘선험적 인식논리학의 分派와推移’가 추적되고, 끝으로 ‘과학적 인식 논리학’의 구조가 해명된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 ‘선험적 인식논리학의 본질’ 아래에서는 경험적 인식의 가능 근거를 밝히는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의 전반부, 곧 서론(Einleitung)과 초월적 논리학(transzendentale Logik) 중 초월적 분석론(transzendentale Analytik)이 검토 해설되고 있고, 이어지는 ‘선험적 인식논리학의 분파와 추이’에서는 新 칸트학파의 인식론이

44) 『朴鍾鴻全集』 II, 186면.

소개되는데, 西南학파의 제학설로 Rickert의 異他論的 원리, Lask의 對象優位說, Bauch의 선험적 주관론이, Maburg학파의 제주장으로 Cohen의 根源의 논리, N. Hartmann의 自體的 存在把握說, Cassirer의 系列關係說이 차례로 다루어진다. 또 ‘과학적 인식논리학’의 핵심 내용은 비인학파의 과학철학이다.

“否定에 관한 연구”에서 박종홍이 비록 Descartes, Spinoza, Bergson, Russell, Sartre와 儒家·道家의 문헌까지도 소재로 삼고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은 Heidegger의 ‘無’(Nichts), Hegel의 ‘否定性’(Negation) 해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박종홍에 있어서 否定性은 現實의 “動的인 전개과정 자체”이다. “이 否定性인 現實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實體도 主體도 문제로서 등장한다. 동시에 否定性은 곧 歷史性이요, 따라서 現實은 歷史的 현실이다. 否定性은 다름 아닌 歷史的 현실이다.”⁴⁵⁾ 인간은 그런데 역사적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방관자일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 현실의 否定性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인간은 “인간 자신이 또한 否定性 이외의 것이 아님을 자각한다. 인간은 否定性의 자각에 의하여 역사적 현실에 대한 한갓된 追從아닌 能動的 참여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역사적 현실의 所產인 동시에 그 역사적 현실의 형성에 참여한다. 이것이 다름아닌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創造다. 自己否定의 能動性은 虛無 일 수 없다. 否定性이야말로 虛無를 돌파 극복하는 힘이다. 否定性이 곧創造性인 所以다. 그리하여 否定性으로서의 역사적 현실을 파악한다고 함은 否定性 자체의 實現인 것이요, 동시에 창조성의 發現인 것이다.”⁴⁶⁾ 박종홍의 논문의 이 결론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가 왜 ‘否定의 문제’를 천착했는가를 알게 된다. 그는 부단히 자기부정을 해 가는 道程에서 역사를 창조해 가고 이상을 실현해 가는 인간의 眞面目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Hegel과 공유하는 박종홍의 이 사상이 그의 남은 생애의 학문과 행적을 지배했음을 우리는 1976년까지의 그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全集』 II, 678면.

46) 『全集』 II, 680면.

참 고 문 헌

- 『朴鍾鴻 全集』 전7권, 형설출판사, 1980.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편, 『철학사상』 4호, 서울, 1994.
- 『新興』 1~9호, 서울, 1929~1937.
- 哲學研究會 편, 『哲學』 1~3호, 서울, 1933~1935.
- 韓稚振, 『最新 哲學概論』, 復活出版部, 1936.
- 安浩相, 『哲學講論』, 東光堂書店, 1942.
- 朴致佑, 『思想과 現實』, 白楊堂, 1946.
- 申南澈, 『歷史哲學』, 서울 出版社, 1948.
- 李鍾雨, 『最新 哲學概論』, 乙酉文化社, 1948.
- 서울대학교 교양교재 출판위원회 편, 『大學敎養課程 哲學』, 서울, 1958.
- 한국철학회 편, 『韓國哲學史』 上·下, 東明社, 1987.
- 趙熙榮, “현대 한국의 前期 철학사상 연구 - 일제 하의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 『용봉논총』 4집, 전남대학교, 1975.
- , “한국의 현대 사상에 미친 서양 철학의 제경향(1931~1968)”, 『哲學研究』 1~9집, 한국철학연구회, 1974.
- , “서구 사조의 도입과 전개 - 철학사조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 대계』 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